



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9 함평 나비 사육 박인섭씨

땅 일구지 않고 '곤충 부농' 꿈 '헤헤'

“축제를 통해 만들어진 ‘함평=나비’라는 지역 이미지를 살리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전남사찰 용천사 들머리에 자리한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박인섭(42)씨는 ‘나비 농부’이다. 지난 97년 서울생활을 접고 귀농해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 봄부터 동네 주민 9명과 함께 새로운 농사에 도전했다. 그것은 땅을 일구는 일반 농업이 아니라 나비와 장수풍뎅이를 길러 판매하는 ‘곤충 농사’였다.

한해 4차례 산란...작년 매출 2억7천만원 장수풍뎅이 등 年 30만여마리 생산 납품

◇곤충산업 메카 꿈꾸는 마을=광덕리는 함평군이 2005~200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나비·곤충 클러스터 사업’에 따라 1차 나비마을로 지정됐다. 박씨는 ‘나비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나비마을과 장수풍뎅이 마을로 지정된 광암리를 비롯해 월야 양정리(사슴벌레 마을), 손불 산남리(곰뽕이 마을), 신광 가덕리(수서곤충 마을) 등 함평 4개 마을이 곤충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이미 나비축제를 통해 ‘함평’하면 나비를 연상할 정도로 지역 이미지가 부각된데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에서 다양한 기술지도도 하고 10여년전 남들보다 한발 앞서 곤충사육에 뛰어든 최문채(함평나비·곤충마을협의회 대표)씨가 적극 돕고 나서 든든한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업 첫해인 2006년에는 경기도 모골포장에 나비를 납품하며

9천650여만원의 총소득을 올렸다. 이듬해에는 7천여만원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지난해에는 나비·곤충엑스포와 롯데월드 남포에 힘입어 연매출이 2억7천100여만원으로 경종 뛰었다. 연간 생산능력은 배추흰나비 20여만마리를 비롯해 호랑나비 5천마리, 장수풍뎅이 10만여마리 등 30만5천여마리에 달한다. 나비의 한살이가 한달 주기이기 때문에 30~50일전에는 주문을 받아야 제때에 납품할 수 있다. 요즘들어 배추흰나비는 ‘환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추모행사 등에 쓰이기도 한다.

사업 첫해에는 나비 사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265㎡(80평) 규모 비닐하우스 6동을 세우고 2007년도에 2차로 체험장과 사계절 사육장 등을 갖춘 165㎡(50평)짜리 비닐하우스 5동을 추가했다. 나비 연중 사육장에 들어서면 내부에 6개의 터널형 텐트가 좌우로 3개씩 줄을 지어 자리하고 있다. 거미나 기생벌 등 천적이 끼어드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방충망이 설치돼 있다. 유채와 케일이 심어진 내부에는 배추흰나비가 너울너울 날개짓을 하며 유채꽃을 찾아 자리를 옮겨다닌다. 애벌레의 먹이인 유채나 케일잎은 구멍이 송송 뚫려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과 번데기도 찾아볼 수가 있다. 실내온도의 경우 낮에는 25도, 야간에는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 덕분에 박씨는 일년에 4차례 나비를 산란, 생산할 수 있다.

◇곤충통해 학생들 인성교육=“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학생들 일수록 하찮은 곤충도 사랑할 줄 안다” 박씨와 광암리 ‘나비·곤충마을’ 주민들은 나비·장수풍뎅이 사육과 함께 용천사입구에 자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체험장 운영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나비 애벌레 2마리를 넣어 1주일후 나비로 우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제품도 보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곤충을 기르는 동네이다 보니 농약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쌀과 밭작물도 친환경 재배가 우선이다. 박씨는 “땅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채나물을 비롯해 농산물도 단순한 판매에서 벗어나 개 수확과 타작을 도시 소비자가 직접 해보며 신뢰감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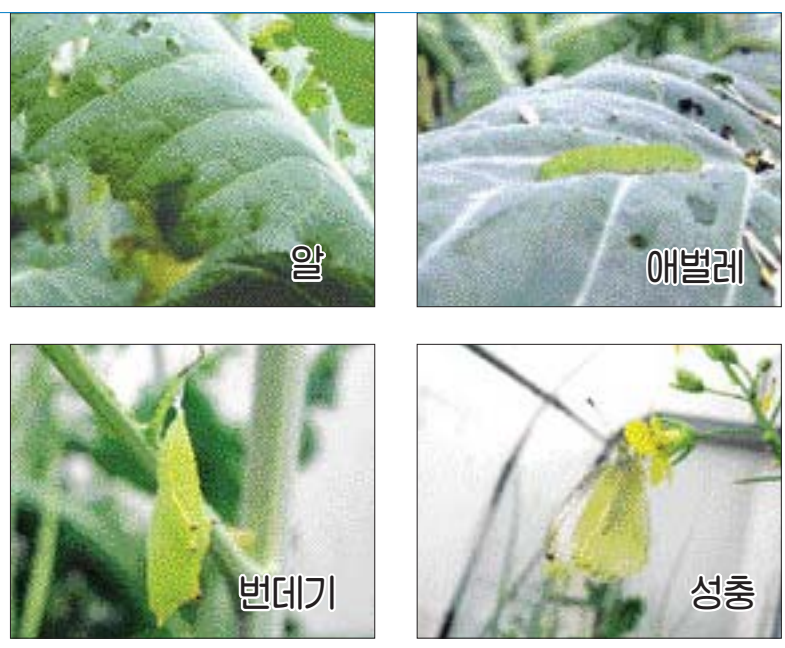
박인섭씨가 나비연중 사육실에서 다자란 배추흰나비를 살펴보고 있다.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에서 먹이식물인 유채 등을 심어 나비를 생산할 수 있다.



광암리 나비·곤충 및 농산물판매장 전경.

나비의 한살이

알에서 나비까지 30~42일 걸리고 5번의 허물 벗어



나비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배추흰나비는 알에서 성충까지 30일, 호랑나비는 42일 정도 걸리며 성충이 된 후 1주일에서 20일 정도 생존한다. 생존하기 위해 애벌레나 번데기는 주변 환경과 같은 보호색을 갖는다. 알에서 아름다운 모습의 나비가 되기까지는 5번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 나비는 알→유충→번데기→성충의 과정을 거친다. 고미 후 나비가 알을 산란하면 10여 일후 부화해 송충이 모양의 애벌레 상태와 번데기를 거쳐 형태색의 나비모양을 갖추게 된다. 탈피를 하는 이유는 애벌레의 몸은 부드럽지만 겹겹질은 키틴질이라는

단단한 물질로 덮여 있어서 애벌레의 몸이 커지려면 반드시 겹테기를 벗어야 한다. 자연상태에서는 거미와 기생벌 등 천적과 한정된 먹이로 인해 부화율이 5%에 불과한 반면 인공상태에서는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나비와 먹이식물도 연관성이 있다. 작은멋쟁이나비는 썩, 큰멋쟁이나비는 모시잎, 산재비나비는 머귀나무를

SAFA

사계절 사육에 45억

만지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조이케질 SF-01

042)365-3200 1688-1471 02-487-8256